

# 절골마을 이야기 지도

저작권자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 광주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제작일 2017년 12월 22일  
 제작 광주광역시 문화원연합회 / 성현출  
 기획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글·정리 김정희(시인)  
 자문 이신성  
 홈페이지 www.jeolgol.kr  
 디자인 주식회사 투니



\*이 인쇄물은 「한국문화원연합회 2017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인쇄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봉산재

봉산재(鳳山齋)는 소촌동(素村洞)의 송호영당(松湖影堂)과 더불어 놀재(訥齋) 박상(朴祥, 1473-1530), 사암(思菴) 박순(朴淳, 1523-1589)을 모시고 있는 재실(齋室)로 정면4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원래는 마을 뒤편으로 형성된 깊숙한 골짜기인 절골의 안쪽에 1859년에 지어졌던 건물이었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건물이 퇴락하는데다 재실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용 및 관리상 어려움이 많아 옮겨서 새로 지은 것이다. 봉산재는 해방이후 문중원들의 전폭적인 협조에 의해 웅장한 모습으로 지어졌다. 찬성공의 재실 옆으로 장남 하천공 재실과 차남 문간공의 재실 등 3부자의 재실이 세워져 있어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한식기와를 올린 팔작지붕 건물이다. 대문(完節門)은 솟을대문이다. 재실에는 기문(記文)이나 재각기(齋閣記)는 보이지 않고 상량문에 을미 구월초 육일(乙未九月初六日)이라 쓰여 있다. 재일은 매년 음력 10월 16일이다.

## 충주박씨천

사동마을은 서창동 7개의 자연마을 가운데 하나로 조선시대에는 사동촌(寺洞村)이라 하였다가 구한말 이후 사동리(寺洞里)로 불리우고 있다. 사동마을에는 충주박씨가 자리 잡고 살기 이전에 이천 서씨들이 거주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충주박씨는 고려시대에 등장하는데, 경명왕의 5남인 사벌왕 언창에서 비롯된 상주 박씨에서 다시 갈라져 나왔다. 충주박씨의 가문의 8대 광리에게는 윤수, 진, 소 등 3남이 있었는데 셋째 판서공 소가 5남을 두면서 가문번성의 계기를 만들었다. 판서공의 4남인 지흥이 충청도 대덕에서 낙남하여 광주 서창동 사동마을에 입주 정착하면서 전라도 지역에 충주박씨들이 터전을 잡고 사는 계기가 되었다. 충주박씨천은 절골마을이 충주박씨의 세거터임을 알리기 위해 박상의 12대 손인 성주가 무오년(1918년) 6월에 마을 입구의 돌비에 새겼다고 한다.



## 놀재 부부 묘소

놀재 박상의 묘소는 내외분을 나란히 안치한 쌍분(雙墳)으로 사동마을의 뒤편 문중의 선산인 송학산 북사면의 아늑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묘소입구에서 돌계단을 오르면 300여평에 이르는 너른 묘역에 상석과 비석 등 오랜 세월을 겪은 석물들이 정연히 자리잡고 묘소를 지키고 있다. 잘 정돈된 계단길을 기본 종계 걸으면 놀재 박상(1474~1530)선생의 묘소로 이어진다. 신도비는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겸 성균관 재주(成均館 祭酒)를 지낸 경연관(經筵官) 송래희(宋來熙)가 글을 짓고 규장각 직제학(奎章閣 直提學) 시강원 우빈안용(侍講院 右賓安容) 김병주가 글씨를 썼다. 묘소에 이르는 절골의 골목골목은 조용하고 깨끗한 숲의 길이다. 부드러운 토담의 기와집 처마와 어울려 한 폭의 그림으로 손색없는 주변의 봉산재와 회양목·수선화·팽팡나무로 단장한 정원을 들여놓은 마당 깊은 집. 묘소 초입 뒤편된 토종 소나무들이 거대한 봉분 2기와 어우러져 울퉁불퉁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절골마을 이야기

www.jeolgol.kr

## 만귀정

만귀정은 서창 관내 동하마을 앞 연못 속에 있는 수증정자로 흥성장씨 낙남선조 효우당 장창우 공이 후학을 가르친 옛터에 그 유덕을 기리는 후손들이 1930년에 지었다. 만귀정이 세워진 동하(洞荷)마을은 조선초 초기에 청주한씨가 입촌하여 생성된 마을로 풍수설에 의하면 마을 형국이 연하꽃과 같고 마을 앞에 연못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정자는 '양반들이 각(角)지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정자 주변에 연못을 만들때 사각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 연못의 형태도 마찬가지이다. 화개봉(花蓋峰)을 뒤로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큰 연못 가운데 세운 물위에 떠있는 정자가 보인다. 정자는 큰 못 가운데에 세운 정자로 다리를 사이에 두고 가장 작은 정자로 물을 관조하는 습향각(襲香閣), 가장 안쪽에 있는 묵암정사(墨菴精舍)에는 대숲이 우거져 누구든 사색하기 좋은 곳이다.



## 학산사

학산사는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가 순절한 삼봉 김세근의 위업을 기려 제사 지내는 사우이다. 경내에는 학산사와 경의당, 학산사 묘정비 등이 세워져 있다. 김세근은 1577년에 문과 급제하였고 중부사주부 직에 있으면서 왜적의 침략에 대비한 양병설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벼슬을 그만 두고 낙향하였다. 1592년 왜적이 서울에 침입하니 서창지역 세동 백마산 수련골에서 수련하던 장정 3백여 명을 모아 담양회맹에 합류했다. 고경명의 대열에 합세하여 영동과 황간에서 적을 무찌르고, 스승인 호서의병장 조헌의 부름을 받고 병든 몸으로 다시 출정해 금산의 와평 전투에서 고경명과 같이 순절하였다.

## 야은당

야은당(野隱堂)은 조선시대 말기 거사 야은(野隱) 김용훈(金容勳 1876~1948)이 당시의 동도서기의 격변기에 어지러운 세태를 어찌지 못하고 이곳에 초당을 짓고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읊으며 이를 실천하고자 은거해 유유자적한 처소였다. 그의 사후 이를 기리기 위해 1936년에 야은의 자제들이 거사의 취지와 절의를 사모하여 이 정자를 건립하고 역호를 야은당(野隱堂)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건물은 정면 3칸에 2칸으로 정내 중앙에 내실로 두었으며 팔각지붕이다. 입구에는 야은거사 김용훈 유적비, 가운데는 임진년 의병장 김세근 공적비, 그리고 .열부유인 김씨행적비가 있다. 김씨행적비는 상산 김씨 전라도 병마절도사 휘 수정의 후손 휘 채호가 산송(山訟) 사건으로 서기 1905년 9월 2일 약한에게 피살되자, 그 부인 김해김씨 삼봉공 휘 세근의 후손 김씨(1871~1930)가 남편의 원수를 갚고 열부가 되기까지 그 행적이 기록된 열부비이다.

## 농선대시주비

서창치안센터 맞은편 민가의 담벼락에 있는 농선대시주비(農船大施主碑)는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시간에 할퀴고 닳아 비석 앞면의 새김글은 대부분 흐릿해졌고 뒷면도 건물과 바짝 붙어 있어 읽기가 수월치 않으나 "건륭 34년에 참봉 강(姜) 아무개와 한량 조(曹) 아무개가 농선을 시주했다" 라고 쓰여있다. 건물은 중국 청나라 때의 연호이고 건륭 34년은 서기년도로 1759년에 해당한다. 농선은 예전에 동네와 강 너머의 농토를 오갈 때 사용된 배를 말한다. 주로 농토로 건너갈 때 사람과 농기구를 싣고 수확기 때 밭단을 실어내던 쪽배였다. 그리고 비문에 등장하는 강 참봉과 조 한량은 아마도 이 동네 혹은 인근에 살던 제법 재력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정리하면 지금으로부터 250여년 전 이곳 서창마을에 귀중한 배를 쾌척한 강참봉 등 두 사람에게 그 감사의 뜻을 담아 동네 사람들이 이 비석을 세웠다 것이다.



## 박호련 송덕비

농선대시주비 옆에 비석들은 일제강점기인 1925년과 1929년에 세운 것으로 박호련(朴浩連)이란 사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송덕비이다. 비석에 적힌 글귀를 보면 박호련은 서창마을 사람으로 가난한 동네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마저도 일찍 여위었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빚뿐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고향을 등지고 야반도주했다. 타향을 전전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채권자들의 양해를 얻어 나루에서 뱃사공 일을 하며 근근이 뱃삿을 모아 빚을 갚았고 운송사업으로 자수성가를 하게된다. 박호련은 그가 젊은 시절에 겪은 시련을 되새기며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 주민들을 도왔고 그리고 이런 행위는 서창마을과 그 인근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되풀이됐다. 송덕비는 바로 그런 연유로 세워졌다.



## 서창한옥문화관

서창한옥문화관은 도심을 벗어나 차량으로는 20분 남짓 거리에 있지만 대중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접근성 문제로 일반 주민 대상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다. 현재는 지역 전통 문화단체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연극 영화 도예 차문화 민박 등 농촌 생활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어 청소년과 실버세대들의 여가 활용과 한옥체험 학습장으로 도농 교류활동을 통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서창한도마을은 조선 중기에 형성된 마을로 임진왜란 때의 의병 김세근 장군의 이름을 따서 세동마을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래 한옥구조로 전통문화 농촌생활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02년 전통한옥 마을을 조성하게 되었다. 서창한옥문화관에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1박2일 한옥스테이, 전통 한옥 고추장학교 등이 열리고 있으며 전통한옥 나루때 사물놀이단, 야생화 자수, 생활다도예절, 규방공예, 민화, 대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내부 민속박물관에는 다양한 농기구와 학문을 하기 위해 쓰였던 용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정리: 김정희)